

##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 형성과 그 의미 -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주 철 희\*

1. 머리말
2. 한국전쟁 전후 반공영화의 역사
  - 1) 여순사건과 반공영화(1948.10~1950.6)
  - 2) 한국전쟁과 반공영화(1950.7~1953.12)
3. 반공문화와 그 의미
  - 1) 반공문화란 무엇인가?
  - 2) 반공문화의 전파와 그 의미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전쟁 전후(1948~1953) 반공영화를 분석함으로써 일반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공문화의 기원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승만 정권은 분단체제 속에서 맹목적 반공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거나 마련하는 것이었다. 국가 기구를 통한 물리적 법제를 통한 억압과 감시라는 배제 방식이 상층부로부터의 ‘반공주의’ 체제구축이었다면, 아래로부터 반공주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반공주의 투철한 의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 방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 적절하게 활용된 것이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작품이다. 특히, 반공영화는 공산주의 만행과 잔혹상을 폭로하고

\*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센터 연구원(kor0301@daum.net)

북한의 실상을 통해 반공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반공의 이념적 흑백 논리는 일상 생활양식으로 민중들에게 반영되어 반공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반공문화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토대로 작동하면서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 주요어: 반공문화, 반공영화, 여순사건,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

##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공식적인 차원에서 제국주의는 멸망<sup>1)</sup>했으며,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았다. 이는 남·북 분단의 서곡이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의 시작이었다. 남·북 분단과 미·소 양국 냉전 이데올로기는 한반도의 도발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은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한국전쟁<sup>2)</sup>은 한반도를 항구적인 분단국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분단국가체제에서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착각하는 사태를 맞이했다.<sup>3)</sup> 정치적 이념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도 ‘반공’이 통용되는 획일적 체

---

1)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을 즉, 제국주의에 대한 통일된 이론보다는, 관점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이론이 도출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종래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침략주의 경향으로 제국주의를 정의했으나 기존의 강대국이나 초국가적 거대 자본이 경제적 약소국가에 들어가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은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파괴하고 서구적 생활양식과 문화를 주입하는 침략 행위의 문화 제국주의 폐해도 지적하고 있다.

2)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에 대해서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칭한다. 최근에 들어 ‘한국전쟁’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 용어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필자는 ‘6·25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한국전쟁과 한국문화’란 주제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3)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은 6대혁명공약 제1조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미 이승만 정부에서 반공을 국시로 간주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했다.

제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일방 ‘반공주의’ 또는 ‘반공이데올로기’라고 한다. 한국전쟁은 통치세력과 지배세력이 반공주의를 통해 헤게모니를 지속해서 장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 자체가 남한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역설적 기능을 수행했다.<sup>4)</sup>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발한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권에게 위기이며 기회였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승만 정권)은 맹목적 반공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체제 안정을 꾀하였다. 첫째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거나 마련하는 것이었다.<sup>5)</sup> 국가 기구를 통한 물리적 법제의 억압과 감시라는 배제 방식이 상층부로부터의 ‘반공주의’ 체제구축이었다면, 아래로부터 반공주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투철한 반공 의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 방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 글은 한국전쟁 전후에 ‘반공문화’가 어떻게 형성했고 토착화되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했다. 먼저 일반 대중에게 반공주의가 투철한 의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문화예술 작품 중 반공영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순사건(1948년 10월 19일)을 ‘반공문화’의 태동으로 설정하고, 반공영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 ‘반공문화’가 토착화되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영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전쟁 전후에 제작된 반공영화, 전쟁영화, 문화영화 등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sup>6)</sup> 그

4)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전통과 현대, 2001, 177쪽.

5) 국가보안법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 69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 명령 제 1호로 공포), ‘선전대책중앙위원회’(1948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35호), 학도호국단 결성, 국민개병제(지원제) 등을 들 수 있다.

6) 김의수, 『한국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차호, 『한국 반공영화 연구: 반공이데올로기의 의미체계와 사회 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유현미, 『태백산맥과 반공이데올로기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배수경, 『한국영화 검열제도의 변화』,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김미현, 『한국 반공영화 서사(narrative)의 기원에 대한

러나 영화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반공’이 사상과 이념의 정치적으로 ‘반공주의’ 또는 ‘반공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통용되었다면, ‘반공’이 일반 개개인의 총체적 생활양식으로 인식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인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반공문화’라 일컫고자 한다. 넷째, ‘반공문화’가 어떻게 일상생활 양식으로 작용했으며, 이승만 정권과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 한국전쟁 전후 반공영화의 역사

‘반공영화’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반공영화’란 영화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특유의 독특한 장르이며<sup>7)</sup> 일반화된 경향이 있다. 어떤 이들은 반공영화를 선전영화의 하위범주로 취급하고, 또는 ‘전쟁영화’, ‘군(사)영화’, ‘경향영화’라는 범주로 명칭을 사용했기도 한다. 혹은 ‘분단영화’의 하위 장르로 보기도 한다.

반공영화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sup>8)</sup> 유현미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혹은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도로 규정되거나, 감추어진 혹은 드러난 영화의 암시적, 징후적 의미의 해석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표현의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보며, 김의수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영화적 관습 속에서 자유이데올로기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로 정의한다. 김차호는 “반공영화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극우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표현방식이 뚜렷한 영화”라고 하며, 조준

연구, 『영화연구』 63, 한국영화학회, 2015; 조준형, 『한국 반공영화의 진화와 그 조건』, 『근대의 풍경: 소품으로 본 한국영화사』, 소도, 2001; 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1949- 1968』, 소명출판사, 2015; 이인규, 『1970년대 반공영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 정책적 동인에 따른 재현 방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2000, 141쪽.

8) 반공영화의 용어 정의는 <주석 6>을 참고 바란다.

형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을 강조하거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투쟁 의욕을 고취하는 영화”라고 정의한다. 김차호와 조준형은 “반공영화는 한국영화사에서 장르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공영화’ 실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한 독특한 반공영화는 분단 상황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분단영화의 하위 범주라고는 할 수 있으나, 전쟁영화와는 다르며, 군(사)영화 형태로만 제작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공영화가 자유이데올로기를 수호할 목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유이데올로기 수호는 명분에 불과했고, 이승만의 정권 유지와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선전한 사례가 다분하다. 따라서 ‘반공영화’는 극우 반공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선전·선동하면서 공산주의를 적대적 환멸의 대상으로 삼는 이분법적 표현 방식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 1) 여순사건과 반공영화(1948.10~1950.6)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발한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권에게 위기이며 기회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반공국가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를 동족에 대한 살인을 일삼는 비(非)인간으로 간주하면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할 도구로 영화를 직접 제작하거나 후원에 나섰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반공주의 대(對) 공산주의의 구분이 시작된 시점이 여순사건이며,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는 그 몫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대략 여순사건 발발 이후에 제작된 반공영화는 7편 정도이다. 이 중 4편은 여순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며 나머지 3편은 여순사건과 무관하게 반공주의 이념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이다. 이들의 영화는 시나리오와 필름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포스터나 광고 선전물이 남아 있는 영화도 몇 편밖에 되지 않아 영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1) 「여수순천반란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김학성과 심재홍이 촬영한 기록영화이다. 내무부와 국방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에서 제작하고 제공했다. 이 영화는 1948년 11월 5일 수도·국도·서울·중앙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하여 그해 말까지 지속해서 상영되었다.<sup>9)</sup>

이 영화의 제작 배경은 순천을 진압한(10월 23일) 정부는 “여수·순천·광주·남원 등지에 봉기한 반군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백성의 멸사(滅死)가 빚어지고 있으며 사회정세는 더 한창 혼잡하게 소동(騷動)되고 있는 터인데 이 일대 흥변의 진상을 보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사와 영화사에 취재와 촬영을 요청했다.<sup>10)</sup> 조선영화사에서는 김학성, 심재홍 등 조선영화사 종군 촬영반을 여수·광주·순천 등지로 파견하여, 10월 말까지 현지 상황을 촬영했다. 194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상영되었다.<sup>11)</sup>

(2) 「북한의 실정」

이 영화는 「북한괴뢰 집단뉴스」란 제목에 부제 「북한의 실정」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후 「북한의 실정」으로 더 알려진 반공 기록영화이다.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에서 촬영하고, 육군본부 정훈감실 보도과에서 발표한 이 영화는 1949년 10월 12일 국도극장·시공관에서 동시 개봉했으며, 19일부터 중앙극장에서도 상영되었다. 현재 시나리오와 필름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줄거리를 알 수 없으나,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광고에는 영화의 촬영 상황<sup>12)</sup>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주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

9) KMDb에서는 이 영화가 1948년 11월 15일 수도·국도 극장에서 개봉했으며, 중앙영화사에서 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의 『경향신문』 1948년 11월 5일자 광고는 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세계일보』, 1948. 10. 28.

11) 民族相爭이 얼마나 悲慘한 것이며 今般의 麗水順天의 反亂事件이 얼마나 慘酷한 것인가를 一般에 公開키 爲하여 當局의 後援下에 全南麗水 順天反亂事件 뉴스 『映畫』는 오는 六, 七兩日間 市民劇場에서 八日에는 馬山劇場에서 各各晝夜上演키로 되었다고 한다(『남조선민보』, 1948. 12. 3; 『남조선민보』, 1949. 2. 17).

12) “보라! 철의 장막을 뚫고 괴문과 사신을 출몰하면서 우리 국군 용사의 모험 정신 촬영한 주옥편을!”(『동아일보』, 1949. 10. 10.)

다.<sup>13)</sup>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서는 감독을 이창근으로 소개하고, “북한의 정치·사회·경제·군사면을 사실 그대로 필름에 옮겨 북한동포들이 얼마나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남한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허울 좋은 선전이 그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인식시켜 반공사상을 고취하고자 제작한 반공 기록영화”라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 영화 광고에는 감독과 출연자 소개 없이 국군이 촬영하고 개봉한 것으로 소개했다.

『북한의 실정』은 살육, 파괴, 기만을 일삼는 공산적구(赤拘)로 묘사하고, 이를 괴뢰집단이라 했다. 철의 장막으로 갇힌 북한의 실상을 통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강조하면서 반공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이 직접 제작한 영화이다. 이 영화를 만든 윤봉춘은 한국전쟁 전후로 반공 기록영화를 만든 대표적인 감독이며, 그를 중심으로 설립한 계몽문화협회는 선전 영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 (3) 「무너지는 삼팔선」

당시 신문에는 서울시 공보과 및 동 선전계몽대가 공동으로 후원했으며 계몽문화협회가 제작했으며, 1950년 3월 14일 시공관에서 개봉하여 23일까지 상영했다고 보도했다.<sup>14)</sup> 현재 신문광고를 비롯한 포스터, 시나리오, 필름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영화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작 등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계몽문화협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아, 윤봉춘이 감독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논평에는 “민족 사상을 양양하기 위한 제작의도를 가졌으나, 구성편집이 조잡하고 주제가 갈팡질팡하여 일관된 내용이 결여되었으며 수법과 기교가 원시적이었다”면서 “설명이 과도와 불필요한 장면이 나열된 것은 촬영자의 부족함이 드

13) “분노! 부녀는 강간하고 우리 부모형제가 학살을 당하는 생지옥 쓰러공산 적구의 야수성을 보라”(『경향신문』, 1949. 10. 18.)

14) “무너진 삼팔선 개봉: 서울시 공보과 및 동선전계몽대 공동후원으로 앞서부터 촬영중이던 민족영화 「무너지는 삼팔선」은 그간 예의 정리에 노력중이던 바 드디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시공관에서 개봉하게 되었다고 한다.”(『연합신문』, 1950. 3. 5; 『경향신문』, 1950. 3. 5; 『동아일보』, 1950. 3. 6.)

러난 영화로 내용적 가치가 일견하다”고 평가했다.<sup>15)</sup>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계몽문화협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아 윤봉춘이 감독을 맡았을 개연성이 크다. 당시 이 영화에 논평은 매우 혹독했다. 내용도 주제가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했고, 영화 제작기법에서도 원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의도에 맞추어 제작하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짐작된다.

한편, KMDb에서는 『무너진 삼팔선』으로 소개하며, 감독에 윤봉춘이 맡아 1949년 12월 10일 국제극장에서 개봉되었다고 한다.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 삼팔선을 두고 남·북간의 치열한 전투를 있었지만, 삼팔선이 붕괴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무너진 삼팔선』으로 소개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목이라고 본다. 주요 줄거리는 “소련에 억류되었다가 자기나라로 귀환하는 일본인들과의 좌담을 통해 공산 국가의 악랄한 만행과 비참한 생활상을 폭로하는 세미다큐멘터리 작품”이라고 소개했다.<sup>16)</sup>

#### (4) 「지리산 작전」

『지리산 작전』은 육군본부 작전 교육국에서 직접 제작한 기록영화이다. 이 영화의 광고에는 “보라! 잔인무도한 폭도 김지회·홍순석의 말로를…… 국군에 포로된 김지회의 처 조경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sup>17)</sup> 영화의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김지회와 홍순석이란 여순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인물을 거론하고 있다. 이 영화는 1949년 7월 20일 서울극장과 중앙극장에서 처음 상영했다.

김지회와 홍순석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유격투쟁을 전개하면서 국군을 괴롭혔다. 국방부에서는 김지회와 조경순에게 현상금을 내걸기까지 했다. 1949년 4월 8일~13일경 지리산 달궁마을에서 김지회·홍순석은 사살되었지만, 조경순은 생포되었다. 정부와 국군은 생포된 조경순(김지회의 처)이

15) 『경향신문』, 1950. 3. 25.

16)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17) 『경향신문』, 1949. 7. 17·20·21·23·25; 『동아일보』, 1949. 7. 18·20·21·22.

자유 대한의 품에서 잘살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자 영화 제작에 나섰다. 조경순은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김지회와 함께 지리산에 입산해 국군의 주요 표적이었다.<sup>18)</sup> 정부는 그녀를 빨치산 선무활동에 활용했다. 또한, 국민과 학생을 상대로 참회의 강연회를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했다. 조경순은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sup>19)</sup> 이러한 활동이 참작되어 감형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20)</sup> 당시 조경순의 참회를 보도한 기사를 보면,

김지회의 애처였던 조경순(20)은 앞서 국군에 체포되었다가 지난 9일 서울에 이송되었는데 방금 국군의 따뜻한 온정을 받고 있는데 그는 지난날의 어리석고 사랑 앞에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에 나갈 의사도 없고 또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내가 배운 병원 간호원으로서 써 준다면 폭도로 인하여 부상당한 군인을 잘 치료하여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숙14일 밤 10시부터는 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3천만 동포에게 사죄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리라 한다.<sup>21)</sup>

조경순의 선무활동과 민중을 대상으로 한 참회의 강연은 대략 두 가지의 정부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나는 ‘반란’의 잘못과 함께 공산주의자의 잔혹성 폭로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너그러운 인자함이 그것이다. 반란 주모자는 토벌과정에서 총살되었지만, 생포된 조경순이 자유 대한의 품에서 잘살고 있다는 선무활동은 빨치산의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중들에게도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알리는데도 효과가 컸을 것이다.

이러한 조경순의 일련 활동을 만든 영화가 『지리산 작전』이다. 영화를

18) “지난 31일 호남지방작전 사령부 북지구전투부대 참모장 魏大善소령 발표에 의하면 여수등지 반란사건 주동자 육군중위 金智會는 방금 부인 동반 지리산에 도피 중에 있는데 전기 김지회 부부를 체포하는 자에게는 일금 50만 원, 사살하는 자에게는 25만 원의 현상을 걸었다 한다”(『호남신문』, 1948. 11. 5.)

19) 『경향신문』, 1949. 10. 2.

20) 『동아일보』, 1949. 11. 8.

21) 『자유신문』, 1949. 5. 14.

통해 민중들은 공산주의의 잔혹성을 정확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적’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면서 반공을 내세운 대한민국의 우월성도 몇 배가 커졌을 것이다. 영화는 신문의 보도나 글보다는 정부의 의도를 민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표출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 (5) 「전우」

「전우」는 현재 시나리오나 필름이 남아 있지 않다. 이 영화는 공보처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보처가 깊이 영화에 개입한 것으로 짐작된다. 제작비 1천만 원에 출연인원 2만 명으로 육군본부작전교육국 정훈과 영화대와 내무부치안국경무과에서 후원했으며, 원작 지계동, 제작 이명우, 연출 홍토무(洪吐無)이다. 그리고 육군 중위 박정인이 감독 장교를 맡았다. 감독장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수와 제작지원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연자로는 장진·전택이·손유성·권일청 등이며, 1949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극장에서 상영했으며,<sup>22)</sup> 지방에서도 상영되었다.<sup>23)</sup> 줄거리는 “공산학정에 시달리다 못해 월남한 두 형제(장진, 택이)가 구사일생으로 월남하여 형은 국군에, 아우는 경찰에 각기 투신하고 멸공전선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반공영화”라고 소개했다. 이 영화는 1949년 10월에 제작된 한형모의 「성벽을 뚫고」에 먼저 제작되었으나, 영화 상영기간도 짧았으며 언론에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수도권극장에서 개봉했다.

『경향신문』 광고에는 연출 홍토무라고 소개했는데, KMDb에서는 홍개명<sup>24)</sup> 감독에 홍토무가 극본을 썼다고 되어 있다. 홍토무와 홍개명은 동일 인물이며, 홍토무는 예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영화가 미공보원에서 제작,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었다고 소개했는데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극본과 감독은 홍개명(홍토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영화를 제작한 이명우

22) 『경향신문』, 1949. 8. 5; 8. 8.

23) 『남조선민보』, 1949. 10. 21.

24) 홍개명은 1906년 출생했으며, 전우(1949), 청춘부대(1938), 장화홍련전(1936), 아리랑개(1935), 사나이(1928), 혈마(1928) 등의 작품에서 감독을 맡았다. 1950년 6·25전쟁 7월 15일 납북되었다(『민주신보』, 1951. 1. 1).

프로덕션은 서울시 문화위원회가 주최한 1950년 서울시문화상 영화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sup>25)</sup>

(6) 「성벽을 뚫고」

「성벽을 뚫고」는 김영수 극본, 박경원 촬영, 한형모<sup>26)</sup>가 감독을 맡았으며, 제5사단(광주) 제3연대 정훈과에서 제작했다.<sup>27)</sup> 배우로 이집길·박희순·서일영·변혜숙·권영팔·황해·구종석 등이 출연했다. 영화의 줄거리는<sup>28)</sup> 이집길(이명석 소위 역)과 권영팔(영구 역)은 대학교 동기동창이며 처남 매부지간이다. 매부 영구는 공산주의자이고 처남 명석은 육군 소위이다. 영구는 처남 명석을 매수하려 하고, 처남은 매부 영구를 설득하려 한다. ‘여순반란사건’이 발발하자 이들은 숙명적으로 맞서게 된다. 명석은 영구를 설득하려 하지만 영구는 명석의 가슴에 총을 겨눈다. 명석도 하는 수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영구가 죽는다.

이 영화는 신인배우 이집길을 톱스타로 끌어 올렸다. 한형모 감독은 국도신문사가 개최한 제1회 영화제에서 최우수작 3편을 선정하는데 이름을 올렸다.<sup>29)</sup> 또한, 1952년에 프랑스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만장일치 선정되기도 했으나, 국제적 수준과 차이가 커 출품을 포기함으로써 불참했다.<sup>30)</sup>

(7)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는 1949년 대한영화사가 300여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영화는 육군본부작전교육국에서 기획·제

25) 서울시문화상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학술, 건축, 공계, 체육 부문으로 나누어 문화상 수상자와 장려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 영화부문에 문화상 수상자는 동서영화사의 「마음의 고향」을 제작자가 수상했다. 각 부문 수상자는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장려상에게는 5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경향신문』, 1950. 2. 25).

26) 한형모(1917년~1999)는 평북 의주 출생. 만주국 신경미술학교를 나와 일본예술대학에서 미술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일본 동보영화사에서 촬영을 수업을 받았다(김수남, 「한형모의 작품세계」, 『영화연구』 16, 한국영화학회, 2001, 202쪽).

27) 『국도신문』, 1949. 11. 28.

28)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김차호, 앞의 논문, 95쪽.

29) 선정된 작품은 「마음의 고향」(12표), 「자유만세」(10표), 「성벽을 뚫고」(9표)이었다(『국도신문』, 1949. 11. 28).

30) 『경향신문』, 1952. 11. 9.

작한 극영화이다.<sup>31)</sup> 안중화가 각본과 감독을 맡고 공국진·이희숙·김지희·이원초 등 지리산 토벌에 나섰던 현역군인이 대다수 출연했으며, 출연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영화의 줄거리는<sup>32)</sup> 지리산에 숨은 빨치산 토벌 명령을 받은 공국진이 험악한 전공을 세우며 빨치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간호장교인 여동생 희숙의 동료 혜련과 사랑을 나누던 공국진은 어느 날 빨치산 대장 이원초를 사로잡는다. 공국진이 부상한 이원초를 극진히 돌보자 이에 감동하여 마침내 전향을 결심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토벌대장(공국진)과 간호장교 혜련과 애정 관계의 극영화 요소를 적용하여 제작했다. 그러나 영화는 멜로드라마적인 전개는 거의 없고 부상당한 빨치산 대장(이원초)을 생포하여 극진한 간호로 전향시킨다는 설정으로 반공주의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빨치산 토벌작전에 나섰던 현역 군인(공국진)이 등장했지만 빨치산 두목으로는 이원초란 가상 인물을 등장시켰다. 당시 “1953년까지 제작된 작품은 거의 모두 6·25사변에서 왔으며 극영화조차 기록 뉴스 영화처럼 보인다.”<sup>33)</sup>는 논평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 상황을 전달하거나 남한 사회의 내부의 적을 색출하여 배제할 목적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를 위하여』는 제작일자로 보아 『전우』와 같이 시기에 만들어진 반공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광고에는 “이 영화는 전선에서 생긴 실화 1편을 극화한 것으로 여기 출연되는 장병과 촬영된 장면을 전부 현지에서 수록되었고 다만 영화 예술인의 소수 찬조를 얻어 완성된 것이다”고 하면서 “치열한 전선에 혈투하는 국군 장병의 용자(雄姿)를 수록할 대규모의 전투영화!”<sup>34)</sup>라고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영화에 대한 논평에는 “극적인 흥미와 기록영화적 수법이 병행된 극영화적 성격을 병행하고 있으나, 작품상의 예술성 및 ‘드라마’로서의 선은 극히 희박했다”면서도 영화발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논했다.<sup>35)</sup>

31) 『경향신문』, 1952. 9. 29.

32)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33) 『중앙일보』, 1953. 12. 6.

34) 『동아일보』, 1949. 9. 26.

이외에도 광주에 주둔한 제5사단(사령관 송호성)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방순회 활동 등을 기록한 『최후의 결사대』를 제작하여 호남지역에 순회 상영했다.<sup>36)</sup> 이북학생원호회가 제작한 『한라산 전투기』<sup>37)</sup>와 『명령만 내리면』<sup>38)</sup> 등이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 2) 한국전쟁과 반공영화(1950.7~1953.12)

6·25전쟁기간에 제작된 극영화는 14편이며, 단편 문화영화는 5편, 뉴스 영화는 10편 등 총 29편으로 전해지고 있다.<sup>39)</sup> 이 중에 반공영화로 분류 되는 영화는 총 15편으로 대부분 기록영화(뉴스영화)이며 극영화는 『화랑도』, 『내가 넘어온 삼팔선』, 『애정산맥』 등 3편에 불과하다. 한국전쟁기에 만들어진 영화는 앞선 시기보다 훨씬 자료가 부족하다. 영화의 제작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신문은 한국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면서 대부분 휴간했고 속간된 이후에는 전쟁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sup>40)</sup>

### (1) 기록영화

『서부전선』은 6·25전쟁 당시 연합군의 서울 수복작전을 비롯하여 북진 하는 작전상황을 수록한 기록영화이다.<sup>41)</sup> 계몽문화협회에서 제작하고 감

35) 『경향신문』, 1952. 9. 29.

36) 『최후의 결사대』는 어떤 영화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호남신문』, 1949. 6. 16).

37) 일부 연구자는 『한라산 전란기』라고 하는데, 오기이다.

38) 『자유신문』, 1950. 5. 5; 『경향신문』, 1950. 5. 6.

39) 극영화: 정의의 진격-2부작(국방부 정훈국), 낙동강(전창근), 삼천만의 꽃다발(신경균), 악야(신상옥), 애정산맥(이만홍), 화랑도(강춘), 내가 넘어 온 삼팔선(손진), 태양의 거리(민경식), 베일부인의 비밀(어학선), 청춘(이만홍), 최후의 유혹(정창화), 고향의 등불(장우연), 북위41도(김성민); 단편문화영화: 백만의 별(이용민), 독도(이용민), 능선을 찾아서(안경호), 여군(조정호), 인상의 한국(신상옥); 뉴스영화 기타: 대한뉴스(대한영화사), 국방뉴스(국방부정훈국), 종합뉴스(육군통신사진대), 특별전선뉴스(공보처), 싸우는 지리산(지리산전투경찰대), 한라산전투기(이북학생원호회), 서부전선(제1사단), 승리의 기록(해병대), 총검은 살았다(해병대) (『경향신문』, 1953. 11. 12).

40) 『동아일보』는 1950년 6월 28일 휴간하여 10월 4일에 속간했으며, 1951년 1월 4일 발행 중지했다가 6일만에 부산에서 속간했다. 『조선일보』는 6월 29일 휴간하여 10월 22일 속간했다. 『경향신문』은 6월 28일 휴간하여 9월 30일 속간했다.

41)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독과 촬영을 윤봉춘이 맡았다. 그러나 실제적인 영화 제작은 제1사단 15연대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부전선은 국군과 연합군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곳으로, 이들의 사기진작과 전황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영화로 짐작된다. 『오랑캐의 발자취』는 1951년 1·4후퇴 당시 서울에 침입한 중공군의 만행으로 인해 허물어지고 불탄 서울의 시가지를 수록한 기록영화이다. 제작사는 계몽문화협회이며, 윤봉춘 감독에 1951년 7월 15일 개봉되었다고 한다.<sup>42)</sup> 우리 역사에서 거란, 몽골 등 북방민족을 오랑캐로 칭했던 것에 착안하여 중공군을 오랑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의 진격』은 1951년 제1부, 1952년 제2부로 국방부 정훈국에서 제작했으며, 감독은 한형모가 맡았다.<sup>43)</sup> 이 영화는 6·25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전쟁의 발발, 교전 상황, 휴전 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 폐허가 된 서울과 평양, 전쟁고아, 죽은 사람들의 모습, 실제 전투장면 등 전쟁의 참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해설자가 전쟁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데, 북한-중공-소련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대 감정을, 남한-UN군-이승만 정권은 민족의 구원자로 묘사함으로써 선전영화적인 성격을 띤다.

당시 보도를 보면 제작에 김관수이며, 김학성과 심재흥이 촬영했다. 김학성은 촬영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금성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sup>44)</sup> 감독 한형모와 촬영에 참여한 김학성·김주남이 국방장관(이기붕)에게 표창을 받기도 했다.<sup>45)</sup> 이 영화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는 『싸우는 대한민국』(가제)으로 공보처에서 주도한 것으로 짐작된다. 1951년 제97차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1억 원에 제작기간 약 2개월로 의결하여 대한영화사에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sup>46)</sup> 전쟁 상황에서 1억 원이란 제작비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다. 『나라를 위하여』가 1만여 명이 동원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42)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43)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44) 『동아일보』, 1972. 11. 27; 『경향신문』, 1982. 11. 22; 1975. 8. 25.

45) 『동아일보』, 1951. 11. 29.

46) 『국무회의기록』 제97차(1951. 9. 4).

제작비는 300여만 원이었다. 또한, 당시 물가와 비교하여도<sup>47)</sup> 엄청난 제작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영화의 목적은 “국제공산당의 죄악상을 온 세계 인민에게 규탄하고 한국사태(전쟁)에 대한 세계 인민의 동정과 인식을 끌기시키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UN정신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을 한민족이 결의”하는 것이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싸우는 대한민국』(가제)은 이후 동 제목으로는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광고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정의의 진격』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은 1951년 11월 29일 국방부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 각종 기념회나 영화관에서 무료상영되었고, 영어판이 제작되어 해외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국무회의에서 가제로 설정한 『싸우는 대한민국』이 실제 영화 제작과정에서 『정의의 진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총검은 살았다』는 해병을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전쟁의식을 고무하기 위하여 해병전투단의 협조 아래 극동영화사가 제작했다. 영화는 1952년 10월 서부전선에서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모습을 실전 그대로 촬영했는데, 감독에는 조인복 대위, 촬영은 신현호, 주연에는 윤일봉과 김수양이 맡았다.<sup>48)</sup> 이 영화는 임운학(본명 정학중, 1906~1987)이 감독을 맡은 것으로 일부에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신문 광고와 보도 등을 종합하면 조인복을 감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KMDB에는 『총검은 살아 있다』란 제목으로 부민관(부산)에서 개봉되었으며, “6·25전쟁 당시 10월 중공군이 서부전선의 한국군 해병 전초진지에 내습했을 때 적의 포위망 내에서 벌어진 전우애와 용전혈투를 생생하게

47) 서울지역 상품 도매가격(1951~1952년)

상품 종류별	쌀 (1등 200리터)	보리쌀 (1등 200리터)	돼지고기 (100근)	달걀 (100개)	담배 (셋별 20개)
1951년도	2,570원	1,790원	5,020원	456원	3원
1952년도	9,300원	6,200원	5,260원	708원	6원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48) 『경향신문』, 1953. 7. 13.

그린 전투기록영화. 적탄이 작렬하는 현지에서 촬영되었으며, 주연을 비롯한 여러 명의 출연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이 영화는 6·25전쟁의 전투를 기록한 영화이나 배우들이 출연하여 전투를 재연한 장면을 삽입한 세미다큐멘터리이다.

『영광의 길』은 계몽문화협회가 제작했으며 감독에 윤봉춘, 촬영에 이성휘가 맡았다. 이선경·이방·윤영란<sup>49)</sup> 등이 출연했다. 줄거리는 “6·25동란 당시 적도(赤徒)의 만행으로 부친을 잃은 면장의 아들 인섭이 군문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유한 가정의 경택이는 끝내 병역을 기피하다가 법의 처단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세미다큐멘터리 영화이다.<sup>50)</sup> 기사 의 끝머리에는 “이선경 이방(종콩) 윤영란 제씨의 호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영화가 1953년 12월 15일 개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sup>51)</sup> 당시 언론보도로 보아 1954년 제작과 함께 개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극영화

『화랑도』는 화랑영화사에서 제작하고 강춘 감독에 이민·염매리·손전 등이 출연한 극영화이다. 줄거리는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이민은 사랑하는 애인 염매리와 헤어져 단신 월남하여 국군에 입대한다. 염매리도 곧 이민을 쫓아 월남한다. 둘은 많은 고난 끝에 서로 만난다. 자유로운 대한의 품에 안긴 그들은 한껏 사랑하면서 반공전선의 일꾼이 된다”는 내용이다.<sup>52)</sup> 이 영화는 6·25전쟁 발발 전에 제작을 시작했으나 전쟁으로 촬영이 중단되었다가 피난지인 대구에서 완성했다.<sup>53)</sup>

『내가 넘어 온 삼팔선』은 1951년 12월 9일~12일까지 『마산일보』에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영남영화사가 제작하고, 감독 송선유, 촬영 강영화,

49) KMDb에는 ‘윤정란’으로 소개되어 있다.

50) 『동아일보』, 1954. 11. 21.

51)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52)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53)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359&cid=40942&categoryId=33093>).

출연자 손전<sup>54)</sup>·송태호·노경희·송미남·정득순·심복수 등이며, 마산극장과 국제극장에서 상영한다는 것이다.

KMDb에는 「내가 넘은 삼팔선」으로 기록되었으며, 손전이 감독으로 되어 있다. 손전의 본명은 송병철이며,<sup>55)</sup> 예명으로 손전, 손일포,<sup>56)</sup> 한일호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송선유도 예명으로 짐작되며 이 영화에서도 손전은 감독과 조연으로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줄거리는 “북한의 대지주 아들(송태호)은 공산당에게 재산을 몰수당한 뒤 월남하다가 38선에서 전 가족을 잃고 단신 남하하여 국군에 입대한다. 한편 북한에서 송태호 일가를 반동으로 모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던 청년(손전)은 공산당의 기만정책에 환멸을 느껴 국군에 귀순한다. 북진을 개시할 무렵에 손전은 송태호와 더불어 북진대열에 참여하여 싸우다가 전사하고 송태호는 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이다. 한국전쟁 상황에서 1951년 8월 15일 부민관(부산)에서 개봉되었으며, 인근 마산 등지에서 주로 상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애정산맥」은 아이영화사가 제작하고, 이만홍 감독에 이집길·유춘·이희숙·구종석·한경하·김필순 등이 출연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유명이며, 원용일이 촬영했다. 내무부 치안국에서 감수하고 전라북도경찰국에서 후원했다. 1952년 4월 14일 부민관(부산)에서 개봉하여 4월 20일까지 상영했으며,<sup>57)</sup> 마산 시민극장에서도 4월 30일 개봉했다.<sup>58)</sup> 한편, 1950년에 같은 제목으로 연극(홍토무 작)이 제작되어 수도권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sup>59)</sup> 1955년에는 노래극(유건목 작)이 공연되었다.<sup>60)</sup> 그러나 영화와 연극과 노

54) 『마산일보』에는 손억(孫億)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마산일보』, 1951. 12. 9. ~12).

55) 손전의 본명은 송병철(1910년 경북 대구 출생)이며 1936년 「무지개」란 영화에 조연으로 데뷔했으며, 1951년 「내가 넘어 온 삼팔선」으로 감독에 데뷔했다.

56) 「공포의 밤」(1952년 작), 「쌍무지개 뜨는 언덕」(1957년 작)은 손일포(孫一圃) 감독이며, 두 영화에서 손전이 주연을 맡았다(『경향신문』, 1952. 8. 13; 1957. 9. 13).

57) 일부에서 1953년에 제작된 영화로 기록하고 있으나 오류이다(『동아일보』, 1952. 4. 12; 1952. 4. 17).

58) 『마산일보』, 1952. 5. 2.

59) 『연합신문』, 1950. 3. 1.

래극이 같은 소재로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줄거리를 보면, “전투경찰 이집길과 빨치산인 유춘은 같은 마을 친구로서 이희숙을 사랑하는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춘 일당이 마을에 내려와서 양민을 학살하고 양곡을 약탈해 간다. 이희숙은 이 사실을 이집길에 알린다. 그 정보로 전투경찰대는 유춘 일당을 소탕하는데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 (3) 뉴스영화 및 기타

한국전쟁기에 제작된 뉴스영화는 『대한뉴스』, 『국방뉴스』, 『종합뉴스』, 『특별전선뉴스』 등이 있다. 뉴스영화는 대부분이 공보처와 국방부 등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전쟁 상황과 국군과 유엔군의 용맹스러운 전투 장면 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영화는 영화관에서는 물론 기념행사일 행사장에서도 상영했다.<sup>61)</sup> 또한, 이런 뉴스영화는 영어판으로 제작되어 해외에 진출하기도 했다.<sup>62)</sup> 『승리의 기록』은 한국전쟁에서 해병대의 활약을 촬영한 기록영화로 추정되나<sup>63)</sup> 정확하게 알 수 없다.<sup>64)</sup> 지리산전투경찰대에서 제작한 『싸우는 지리산』은 지리산 토벌작전에 투입된 경찰의 활약을 기록한 영화로 짐작된다.

60) 『동아일보』, 1955. 7. 13.

61) 전란기록영화 수도권극장에서 상연 대회성황(『동아일보』, 1950. 10. 23); 민경친선주간 영화. 연극 공연(『동아일보』, 1951. 2. 13); 개천절기념 강연 영화회 개최(『동아일보』, 1951. 10. 3); 국의 영화 감상회 매주 화요일마다(『동아일보』, 1951. 10. 28); 해병대창설기념 음악영화 성황(『마산일보』, 1952. 4. 15).

62) 『동아일보』, 1951. 9. 9.

63) 『경향신문』, 1953. 11. 12.

64) 1950년 보스턴세계마라톤대회에서 1·2·3위를 제패한 함기용·송길윤·최윤칠 선수의 활약을 보급하고자 대한교육영화사가 제작한 『승리의 기록』이 있다(『경향신문』, 1950. 6. 18).

### 3. 반공문화와 그 의미

#### 1) 반공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개념은 전통의 개념을 함축한다.<sup>65)</sup> 즉,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측면, 문화와 양식이라는 실체적 측면 그리고 사고와 행동에 대한 가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지적(Intellectual)인 것이며 ‘총체적 삶의 양식(Total way of life)’으로 정의한다.<sup>66)</sup> 문화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에드워드 테일러(Edward Taylor)는 그의 저서 『Primitive Culture(원시문화)』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적인 총체”라고 했다.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는 문화에 대해 세 가지 정의로 설명했다. 첫째, 문화는 ‘지적·정신적·심미적인 계발의 일반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둘째,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째, 문화는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하여 문화는 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문화의 광의성을 내포한 이 선언은 일상적인 행위의 생활양식도 문화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기업문화’, ‘음주문화’, ‘교통문화’, ‘대학문화’, ‘외식문화’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65) 전통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에 대한 사전적 의미(한글학회, 1991)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의 양식 또는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역사적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서 현재의 생활의 의미와 혼용이 되는 문화유산을 말하기도 한다.

66) 문화의 정의는 Chris Jenks, *Culture*, 김운용 옮김,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술사, 1996; Peter Burke, *What is culture history?*, 조한욱 옮김, 『문화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05; 김영해,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 비평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을 참조.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은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항구적인 분단국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전쟁은 적대적 분단체제의 형성을 통해 남한은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친미반공국가를 수립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적 세습병영국가를 수립했다. 분단은 정치적 체제의 변화는 물론이려니와 오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전승되었던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과 생활양식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분단국가체제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명시한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국가 이념을 ‘반공’으로 착각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포에 의한 통제에 나섰다.<sup>67)</sup> 이에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도 ‘반공’이 통용되는 획일적 체제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일방 ‘반공주의’ 또는 ‘반공이데올로기’라고 한다. 한국전쟁은 통치세력과 지배세력이 반공주의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지속해서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 자체가 남한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역설적 기능을 수행했다.<sup>68)</sup> 일반적인 생활양식에서 ‘반공’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를 ‘반공문화’란 일컫는다.

‘반공문화’는 일반적으로 통용된 용어가 아니며, ‘반공문화’로 적시하여 연구된 분야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한국전쟁 이후 사회의식 또는 문화의 변화나 변동에 관한 연구가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sup>69)</sup>

67) ‘제일신문 사원검거 국시 위반 때문’(『서울신문』, 1948. 9. 16); ‘애국연맥 각 단위 결성’(『경향신문』, 1948. 11. 12); ‘언론정책에 대한 제의서 전달’(『한성일보』, 1948. 9. 24).

68)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전통과 현대, 2001, 177쪽.

69)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명규·김영범, 『해방후 한국의 문화변동과 집합의식』,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반공문화’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냉전체제에 사회·문화적 현상을 ‘냉전문화(cold war culture)’로 칭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70)</sup>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냉전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염찬희는 권혁범의 글을 인용하여, “남한에서의 냉전 문화란 단순화하면, 1) 분단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압력에서 파생되는 일상적 수준에서의 언행 양식, 그리고 2)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고방식 및 정서를 의미한다. 그것은 냉전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권이 반공·반북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화화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적 사고와 정서의 일부로 녹아 있다”<sup>71)</sup> 했다.

조민은 “일반 대중의 사회 문화적 의식 형태 또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경향과 관련된 의식 일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냉전문화는 “반공의식, 분단콤플렉스 그리고 반북의식과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sup>72)</sup> 했다. 조은은 “냉전문화는 망각과 침묵에서 배태된 문화이며, 전쟁에 이긴 자, 남성들, 국가주의의 기억 생산에 편입된 문화”<sup>73)</sup> 했다.

‘반공문화’와 ‘냉전문화’의 차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 글에서 ‘반공문화’는 어쩌면 ‘냉전문화’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반공문화’를 개념을 등장시키느냐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세계사적 흐름은 빠르게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한반도는 미·소 강대국이 각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패권 다툼의 주요한 거점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세계사조는 탈냉

70) 조민,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1999; 조은, 『냉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여성과 평화』 3, 한국여성평화연구회, 2003; 염찬희, 『1950년대 영화의 작동방식과 냉전문화의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29, 한국영화학회, 2006.

71) 염찬희, 위의 논문, 196쪽 재인용.

72) 조민, 앞의 논문, 8쪽.

73) 조은, 앞의 논문, 73쪽.

전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런데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냉전체제에서 이미 벗어나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와 국교를 맺었으며, 민간인 왕래가 활발하며 경제·무역 활동도 상당하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냉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상호 증오와 저주로 대결·반목·불신으로 대중적 의식을 짓누르고 있다. 당연히 남한은 ‘반공’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냉전문화’보다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한 지배이데올로기 작동하고 있는 ‘반공’이 일상적 언행 양식이나 삶의 방식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문화’란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반공문화’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반공’이 정치적 사상과 이념으로 ‘반공주의’ 또는 ‘반공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통용되었다면, ‘반공’이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일반 대중의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인식되고 사고의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공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반공주의란 정치적이거나 사상적 개념만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한 생활방식으로 자리한 지배문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민중의 생활 속에서 나와 다른 타자를 배타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정치 또는 이념과 관련 없는 사회적 이슈에도 ‘적’으로 간주하거나 과거의 사고에 매몰되어 ‘빨갱이’, ‘용공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경향이 도드라진 점에서 이를 한국적 문화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반공주의와 반공문화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지만, 민중의 생활양식 측면, 즉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면 반공주의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반공영화’가 대한민국만이 존재한 독특한 영화의 분류라면, 반공문화 또한 마찬가지이다.<sup>74)</sup> 반공문화는 잠정적인 분단에서부터 시작하여 항구

74) ‘반공문화’란 용어가 독특한 것이지만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McCarthyism)이나 대만의 반공주의로 형성된 냉전문화 등도 반공문화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를 작동하는 주요한 요소로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

적인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전쟁을 통해 확고한 문화의 한 부류로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했고, 대중은 일상생활에서 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반적으로 인식했다.

대한민국의 반공이데올로기는 북한 공산주의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이분법적 논리로 배타성을 전제로 한다. 적대적 논리에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를 ‘반민족’으로 규정하며 이분법적 논리에서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공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부정적 반응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즉,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나 객관적 비판을 적대적 감정으로 치환시키는 격렬한 정서의 이념적 표현으로 노출된다. 이는 공산주의를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보는 시각도 하나로 통념화 되어 ‘좌파사상’으로 몰아세우며 모든 형태의 ‘좌파’는 금기이고 사회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좌파사상이나 공산주의와 무관하지만,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할 의심만으로도 ‘좌파’ 또는 공산주의자로 규정하여 억압하고 있다. 이른바 ‘색깔론’이다. 정치적 반대이거나 경쟁자에게도 이러한 규정을 내세워 억압했다. 즉, 사상과 무관하지만 ‘내 편’과 ‘내 편’, ‘선’과 ‘악’, ‘국민’과 ‘비국민’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핵심은 반공이었고, 이는 일상생활의 양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반공문화’라고 일컫고자 한다.

남과 북의 분단체제에서 남한의 ‘반공문화’는 비판적 태도나 부정적인 반응마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공산주의자’, ‘용공주의자’, ‘종북’, ‘빨갱이’, ‘좌파’로 일상화 시킨 사회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 저변에 내재한 이분법적인 논리의 생활양식도 반공문화에서 차출된 또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공문화는 보수우익세력에 의해 적절하게 활용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의 지배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한 반공문화는 반공이데올로기 구축과정에서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었다. 해방 이후 대립과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일

반 민중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도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동의체제가 아닌 억압적 수단에 의해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sup>75)</sup>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여순사건 이후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마치 국가의 국시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순사건을 진압한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반공’을 선전·선동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는 ‘잔인무도한 귀축’, ‘민족의 원수’, ‘흡혈귀’, ‘괴수’였다. 빨갱이는 씨도 남기지 말고 죽여야만 하는 존재였다.<sup>76)</sup>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비인간적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sup>77)</sup> 이렇게 이념적 색깔론과 이분법적 생활양식의 반공문화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형성되었다.

## 2) 반공문화의 전파와 그 의미

해방 이후 문맹률은 80%에 다다랐다.<sup>78)</sup> TV는 보급되지 않았고, 1959년 기준으로 라디오 보급률은 천 가구당 8.0%에도 미치지 못했다.<sup>79)</sup> 이마저도 서울이 29.5%였고, 전남 1.6%, 충북 0.45%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의 라디오 보급률은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정책 등을 선전·홍보하기 위해 기념일을 이용하거나 각종 집회

75)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16, 역사문제연구소, 1992(봄호), 133쪽.

76) 주철희, 『예술작품을 통해 본 여순사건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95쪽.

77) 오제도, 『공산주의 ABC』, 남광문화사, 1952, 102~108쪽.

78) 1944년도 전국 불취학 현황이다.

구분	인구(명)	불취학(명)	불취학비율
14~20세	3,138,232	2,015,770	64.2%
21~30세	3,468,158	2,623,131	75.6%
31~40세	2,820,590	2,325,037	82.4%
41세 이상	5,234,258	4,734,419	90.5%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79) 이 통계는 1959년 천가구당 보급률(%)이다.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보급률(%)	8.0	29.45	10.0	0.45	7.1	5.5	1.6	4.6	4.1	5.9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지도층 인사의 연설과 영화 상영이 필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민중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영화는 글이나 연설보다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감정이입을 통해 주제를 전달했기에 대중들의 관심은 그만큼 컸다. 영화가 가진 대중문화의 성격과 흥미와 친근감을 주는 매체의 특성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현상을 재생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직접적인 정서적 오감을 자극하는 감동을 제공했다. 그 감동은 오랜 기억으로 자리했다.

영화가 반공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의 도구화가 되어 선전용으로 활용된 계기의 사건이 여순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영화가 대중에게 미친 파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반공이데올로기나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묘사를 언제든지 검열이란 잣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도 파악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발발 소식을 들은 이승만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한 것은 언론 통제였다.<sup>80)</sup> 그리고 공산주의 만행을 고발하고 반공주의 정치체제를 대중에게 선전·선동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계몽이란 명분으로 조직된 계몽대, 종교위문단, 계몽선전대 등 선전반이 그러하다.

계몽대는 정부의 내무부 주도하에 계몽·위문·구호를 위하여 10월 26일부터 현지에 파견했다.<sup>81)</sup> 계몽대는 고려대학교 김익준 교수를 수반으로 반란을 직접 겪었던 여수·순천 등을 비롯하여 전남지역에 집중하여 계몽 활동을 펼쳤다.<sup>82)</sup> 계몽대는 지방의 저명인사·관료·교수·목사 등이 연설자로 나서 강연회와 좌담회 등을 개최했다. 정부의 계몽대 파견 이후 각 학교와 전국학생연맹에서도 앞다투어 계몽대를 파견했다.<sup>83)</sup>

종교위문단은 정부 부처인 사회부가 주도했다.<sup>84)</sup> 종교위문단은 10월 31

80) 정부는 국군부대 반란을 보고 받고 언론보도 일체를 금지했다. 공보처는 10월 21일에 일체 신문기사를 보류하는 기재유보조치를 단행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만 게재할 수 있다고 했다(『자유신문』, 1948. 10. 22).

81) 『동아일보』, 1948. 10. 26.

82) 『동아일보』, 1948. 11. 28; 1948. 11. 30.

83) 『자유신문』, 1948. 12. 12; 1949. 4. 13.

84) 『경향신문』, 1948. 11. 2.

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주·순천·여수·구례·별교·보성 등을 시찰했다.<sup>85)</sup> 이들의 활동은 각 지역의 관리와 우익인사로부터 주로 의견을 들었다.<sup>86)</sup> 종교위문단은 현지 위문 검 조사를 마치고 미군 제24군 공보관 임석 하에 진상보고와 아울러 수습대책을 협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sup>87)</sup> 이윽고 공보처와 사회부 후원으로 1948년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공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sup>88)</sup>

문교부에서는 ‘반란실정 문인조사반’(이하 문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순천·여수를 비롯하여 광주·진주(하동)를 시찰하는 것이었다.<sup>89)</sup> 시찰기간은 11월 3일부터 7일간 현지를 둘러보는 것이었지만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수와 순천 광양 일부만 둘러보고 11월 8일 서울로 귀환했다. 이들의 목적은 “현지의 참담한 모양을 실지로 답사하여 자세히 살핀 뒤 그 발생한 원인과 근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관조해서 민족정기에 호소하고 국가재건의 방책에 이바지”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이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이 땅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글과 사진으로 쓰고 그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다.<sup>90)</sup>

박종화·정비석·이현구·김영랑 등은 뛰어난 필력으로 여순사건의 현지 답사를 신문에 기고했다.<sup>91)</sup> 이들의 글을 이해하는데 주목할 점은 이들의 현지답사 시점이다. 11월 3일 서울에서 출발했으나, 순천 현지에 도착한 날은 11월 4일 오후였다. 순천과 광양지역이 진압군에 의해 탈환된 날은 10월 23일이다. 즉, 문인조사반이 현지에 도착하기 13일 이전부터 진압군

85) 『동광신문』, 1948. 11. 2.

86) 종교위문단은 11월 1일 광주의 방직공장을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11월 4일 순천지구 사상자 합동추도대회에 참여하고, 구호물자를 순천과 여수에 보내는 등의 위문사업을 벌였다. 지방관리와 유지들을 만났는데 11월 1일 이남규 전남지사·광주 경찰서장, 11월 2일 순천군수·민족청년단·대동청년단 등 단체 대표자, 순천주둔 국군과 지방관리, 11월 4일 구례 경찰서장·중학교 교장, 11월 5일 별교면장·보성군수 등을 만났다.

87) 주철희, 앞의 논문 참조.

88) 『경향신문』, 1948. 11. 13.

89) 제1반은 박종화·김영랑·김규택·정비석·최희연, 제2반은 이현구·최영수·김송·정홍거·이소녕(『동아일보』, 1948. 11. 3).

90) 박종화, 「남행록 1」, 『동아일보』, 1948. 11. 14.

91) 주철희, 앞의 논문, 37~41쪽.

에 의해 순천지역에서는 협력자 색출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사건의 발발지인 여수는 10월 27일 진압군에 의해 완전히 탈환되었다. 문인조사반이 여수에 도착한 날은 11월 5일이었고, 이들이 도착하기 10일 전부터 협력자 색출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문인조사반은 폐허된 거리의 참혹함, 시민의 잔혹한 학살 모습 등 모든 행위를 반란군 또는 지방좌익이 저지른 것으로 고발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곳은 공보처였다. 공보처(처장 김동성)는 언론·문화·사회에 대한 감시와 검열에서부터 선전·선동에 이르기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아울러 활동 수위도 통제적인 성격으로 전환했다. 연극과 영화의 대본이나 각본에 검열을 공보처가 주도했다. 제작에서부터 상영까지 검열은 필수적인 절차였다.<sup>92)</sup> 검열 기준은 이승만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공산분자는 매국노이며 평화의 적으로 간주했다. 공산주의자는 ‘내 민족’이 아니었다. ‘민족의 원수’이자 ‘적’이었다. 공산주의나 반공이냐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이 민족 구성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차적 의미였다.<sup>93)</sup>

공보처가 공산주의 잔혹성을 알리기 위해 전면에 나선 결정적 계기는 여순사건이었다. 공보처 일련의 활동에서 조직된 것이 ‘선전대책중앙위원회’이다. ‘선전대책중앙위원회’는<sup>94)</sup> 1948년 11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정식 설치되었고, 12월 20일 각 시도에 직제가 마련(총리령 제3호)되었다.<sup>95)</sup> 선전대책중앙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 지방계몽선전파견대(이하, 계몽선전대)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나섰다. 계몽선전대는 “오늘날 다시는 이러한 민족의 참변이 없도록 3천만이 다 같이 한결 같은 마음의 무장을 하고 또는 반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민족정신을 강력하게 양양시키기 위한다”면서 사상적 방향을

92) 『경향신문』, 1949. 10. 2.

93)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413쪽.

94)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공보처장이며, 3개 부서(기획, 실천, 재정부)를 두고 관계, 학계, 문화계, 경제계, 언론계 등 인물을 포진시켰다(『조선일보』, 1948. 11. 23).

95) 김득중, 앞의 책, 532쪽.

한가지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sup>96)</sup>

계몽선전대는 16반으로 나누어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18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펼쳤다.<sup>97)</sup> 연극반과 영화반으로 편성된 계몽선전대는 박종화·양우정 등 문인과 언론인을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관리들이 총망라한 대규모 계몽선전운동으로써 각 지방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선전대책중앙위원회가 전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선전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sup>98)</sup>

각 지역의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부인회·대한노총 등 우익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이들은 강연과 영화·연극을 상연했는데, 관람은 무료였다. 11월 16일 계몽선전대 귀환보고회가 중앙청에서 이철원 공보처장, 김석관 체신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계몽선전반은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하면서 계급별(학생, 농민)에 맞는 선전이 필요하다고 했다.<sup>99)</sup> 국방부에서도 원용덕(元容德) 장군을 수반으로 영화계몽반이 활동했다. 내무부에서도 『동아일보』 편집고문인 고재욱을 수반으로 하는 연극계몽반을 조직해 12월 1일부터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강연과 함께 영화·연극을 상연(영)했다.<sup>100)</sup> 이보다 앞서 광주 주둔 제5사단(사단장 송호성 준장)에서도 선전계몽영화반을 조직하고 6월 하순부터 약 1개월 동안 호남지역을 순회했다. 이승만 정부는 일련의 계몽선전반 활동에서 민중을 선전·선동할 매개체로 영화를 직접 제작하거나 지원하였다.<sup>101)</sup> 『여수순천반란사건』의 제작이 좋은 사례이다.

국내 정세가 혼란의 암운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 때 돌연 여수·순천·광주·

96) 『서울신문』, 1949. 10. 22.

97) 『서울신문』, 1949. 10. 22; 주철희, 앞의 논문 참조.

98) 김득중, 앞의 책, 533쪽.

99) 『서울신문』, 1949. 11. 17.

100) 『동아일보』, 1949. 11. 12.

101) “首題映畫 “祖國”을 공보처·사회부 양부처 주최하에 진행케하며 제작비 금 일천만원 을 공보처 선전으로 보조할 것을 의결하다.”(『국무회의록』제45회, 1949. 5. 3); “민족 수난기 영화제작에 관한 건:기획·공보 합의시행토록 의결하다.”(『국무회의록』제107 회, 1949. 12. 6.)

남월 등지에 봉기한 반군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백성의 滅死가 빚어지고 있으며 사회정세는 더 한창 혼잡하게 소동되고 있는 터인데 이 일대 흥변의 진상을 보도하고자 각 신문사에서는 용맹한 용필의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거니와 또한, 조선영화사에서는 이를 크랭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고자 金學成, 沈在興 이의 수인의 촬영반을 여수·광주·순천 등지로 파견했다는 금월 말일까지 귀경하리라 한다.<sup>102)</sup>

이승만 정부는 민첩하게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제작했다. 사건의 사실적 진상보다는 ‘반란군’의 잔혹한 만행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와 반감, 반공주의의 우월성을 민중들에게 선전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도에서 제작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전국 곳곳의 집회장소와 극장에서 선전영화<sup>103)</sup>로 상영되었다. 이후 농촌과 산악지대에서 펼친 토벌작전 등을 포함한 『반란사건특보』(1949년 2월)를 국방부는 새롭게 제작하여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서 상영했다.

『북한의 실정』, 『무너지는 삼팔선』 등의 영화는 윤봉춘이 설립한 계몽문화협회에서 제작되어 선전영화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자유 대한의 포용성과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지리산 작전』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던 빨치산에게 상당한 심리적 동요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알리는데도 크게 작용하면서 민중들에게 투영되었다.

여순사건 발발 초기에는 기록영화가 다수였다. 상황을 설명하는 단조로운 기록영화는 민중의 감정선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이며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측면에서 1949년 이후부터는 극영화(세미다큐멘터리 포함)가 등장하였다. 극영화의 특징은 대비되는 두 인물을 설정하여 반공주의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설파하면서 대한민국의 인자함과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공

102) 『세계일보』, 1948. 10. 28.

103) 선전영화를 국가나 단체의 단결을 강화하거나 적대세력, 중립세력을 비난·파괴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를 의미한다(정영권, 앞의 책, 53~55쪽).

통점이 있다. 특히 가족이나 이웃을 잠재적 공산주의자로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다른 타자를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sup>104)</sup>

그 대표적인 영화가 「나라를 위하여」와 「애정산맥」과 「성벽을 뚫고」이다. 이들 영화는 애정관계의 멜로드라마적인 서사를 극영화와 기록영화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반공을 강화하는, 반공이 일반 생활양식의 주요한 기제가 되도록 민중의 속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성벽을 뚫고」는 극영화만 제작되어 당시 반공영화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당시 영화평론가 백철은 「성벽을 뚫고」를 “적확한 리얼리즘적 능력을 보여준 영화”라고<sup>105)</sup> 평가하면서 정부의 의도를 대변했다. 「성벽을 뚫고」와 같이 형제 또는 가족 간의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를 내세운 문화예술작품은 시대의 사조로써 자리했다.<sup>106)</sup> 따라서 「성벽을 뚫고」는 극영화 장르의 반공영화의 본격적인 서막이며,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적대적 논리를 전파하는 반공문화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시공간을 초월한 재생산이 문화로써 자리매김하고 단적으로 보여준 실례이기도 하다.

한국전쟁기간에 정부에 의해 직접 기획된 「정의의 진격」은 친정권적이며 반공주의의 편향성을 이전 시기보다 훨씬 강도 있게 표출하여 제작된 영화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기됐던 정당성 시비를 일거에 잠재우는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 또한, 반공영화는 남한 사회 내부의 적을 색출하여 배제할 목적과 민중들에게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겁박으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으로 반영되었다. 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반공문화가 정부의 주도아래 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공문화의 확산에는 영화의 대중성이 적절하게 활용된 것이다.

영화 매체가 갖는 대중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대중을 하나의 생각으로

104) 염찬희, 앞의 논문, 213쪽.

105) 『조선일보』, 1949. 12. 29.

106) 김동리의 「형제」, 「광풍 속에서」 등의 소설과 연극 「향」이 대표적이다. 주철희, 앞의 논문 참조.

단일화할 수 있는 획일주의 전파하는데도 매우 적절한 도구였다. 한국전쟁 전후 제작된 반공영화가 기록영화→세미다큐멘터리→극영화 등으로 장르의 변화를 보이면서 대중의 사고방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쳤던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영화를 관장했던 기구의 변화에서도 영화란 매체를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전도구로 인식하였는지도 알 수 있다.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미군청청 공보부에서 관장하던 영화 행정 업무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1950년까지 공보처 영화과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1952년까지는 국방부 보도과, 1952년~1955년까지 국방부와 공보처에서 합동으로 관장했다.<sup>107)</sup>

영화 행정 업무는 언론·문화·사회에 대한 감시와 검열에서부터 선전에 이르기까지 활동영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 아울러 국방부가 영화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은 그 활동 수위가 통제적인 성격으로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행정업무는 영화의 대본이나 각본 그리고 제작에서부터 상영까지 검열은 필수적인 절차였다.<sup>108)</sup> 그 기준은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화는 공산주의자는 매국노이며 평화의 적으로 간주하며 제작되어 상영되었다.

공보처와 국방부에서는 이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심혈을 쏟았다. 즉, 체제 선전용으로 1960년대까지 무료상영이 이루어졌으며,<sup>109)</sup> 반공방첩 강화 주간을 정하고 행사를 하기도 했다.<sup>110)</sup> 또한, 정부는 이 영화를 해외 나라에도 소개하기도 했다.<sup>111)</sup> 정부는 반공문화가 확산과 재생

107) 염찬희, 앞의 논문, 208쪽.

108) 『경향신문』, 1949. 10. 2.

109) 삼군합동위령제가 끝난 다음 하오 2시부터 시내 수도극장에서 '정의의 진격' 등 기타 최신 뉴스영화를 상영하는 등 유가족 위안을 베풀었다(『자유신문』, 1951. 11. 1.); 국방부 정훈국에서는 8·15 광복 10주년을 맞이하여 16일부터 미도파서 개최하고 있다. 동전사회는 군정훈 기록사진 및 정훈 각종 간행물을 전시하는 한편 국방"뉴 | 쓰"와 "정의의 진격" 등 영화를 상영한다(『동아일보』, 1955. 8. 18);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뒤하여 약 두달동안 반공영화 6·25사변의 기록영화인 "정의의 진격"을 시내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상영한다(『동아일보』, 1960. 9. 18).

110) 『서울신문』, 1950. 5. 13.

111) 한국영화소개 중대서관서 요청: 대만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도공보

산되는 선봉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토착화되었다. 극장에서 의무상영 조치를<sup>112)</sup> 비롯하여 각종 기념행사나 집회에서 무료 상영된 것이 그 사례이다.

반공영화에 대한 무료 상영이나 동원이라는 형식은 입장 관객 수를 늘여놓는 기록의 문제 외에 영화수용자들에게 접근해도 해를 입지 않는 영화, 즉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나아가 보아야 할 것으로 이들 일련의 영화를 범주화하면서 그 내용에 접근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 것으로 보인다.<sup>113)</sup> 여순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하지만 좌익 세력 색출하거나 좌익에 협력(부역)하거나 협력할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가입시켰다. 즉, 민중은 현재적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좌익으로 낙인될 수 있는 위협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이들은 좌익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동원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좌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아도 무방하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으로” 공증한 반공영화는 그들의 사상적 결합 또는 무의식적인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

이렇게 반공이데올로기가 압도한 한국전쟁 전후로 국가권력의 무차별적인 통제와 억압의 경험과 반공영화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잔혹상의 기억은 오랫동안 일반 민중들을 생활양식에 그대로 투영되어 삶의 지표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 다른 타자를 배타적으로 적대시하는 이분법적 구조의 이국적인 독특한 반공문화를 형성하며 지배 논리로 작동했다.

정부수립을 전후해 그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항운동에 사상과 세력이 취약했던 정부는 국민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의 정당성을 하루빨리 정립하여 인식시키고 국민 통합을 서둘러 이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114)</sup> 그러한 점에서 여순사건 발발과 함께 반공영화가 극장에

과에서는 "정의의 진격"(『동아일보』, 1953. 4. 4.)

112) 『조선일보』, 1949. 12. 14.

113) 염찬희, 앞의 논문, 213쪽.

서 활발하게 상영되고 선전광고가 주목받는 경향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특히 여순사건 이후 그 영화들이 노골적인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분법적 적대 관계의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가 전국 곳곳에 파견되었던 계몽선전대 등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었다. 영화를 본 민중들이 “감격”과 “눈물로서 반응”했다는 보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sup>115)</sup> 그리고 이것이 반공문화로 정착되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민중들의 ‘감격과 눈물로서 반응’을 목격한 정부는 반공문화 생산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포착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의 ‘반공’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은 반공문화의 도구성을 환기하는데 필요충분의 요소를 제공했다. 곧 문화적 정당성의 과시를 통해 물리적 폭력수단을 독점한 국가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지배집단의 권력 장악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sup>116)</sup> 시대와 국가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목 아래 영화를 필두로 문화예술작품은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반공문화를 확산하고 재생산했다. 반공문화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 정통성의 취약성을 확고하게 하면서 이승만의 영구 집권 체제 구축의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류사회의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했으며, 주류사회를 떠받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공문화의 특징은 적대적이고 이분법적 논리로 배타성이다. 즉, 객관적 비판이나 논리보다는 ‘선과 악’, ‘내 편과 네 편’, ‘옳고 그름’으로 평가됨으로써 이념적 표현으로 노출했다. 이러한 집단적 비이성은 ‘빨갱이’, ‘용공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사회구조를 양산했다. 이른바 ‘색깔론’으로 불리는 이념적 공격은 일부 세력에게 그대로 수용되고 확산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는 당시의 시대상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

114) 이하나, 앞의 논문, 520쪽.

115) 『동아일보』, 1949. 11. 1; 『경향신문』, 1949. 11. 18.

116) 김권호, 『한국전쟁영화의 반공영화로의 포획과정에 관한 연구:1954~1969』,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5쪽.

나라,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한국전쟁 전후에 제작된 ‘반공영화’는 극우 반공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선전·선동하면서 공산주의를 적대적 환멸의 대상으로 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주로 표현했다. 여순사건 발발 이후에 제작된 반공영화는 7편 정도이다. 이 중 4편은 여순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며 나머지 3편은 여순사건과 무관하다.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기록영화로서 반공영화의 기원이었고, 『나라를 위하여』는 극영화로서 반공영화의 효시이며, 이를 완성한 영화는 『성벽을 뚫고』였다. 여순사건 관련 영화는 공산주의 만행과 잔혹상을 폭로 했으며, 나머지 영화는 북한의 실상을 통해 반공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주력한 영화였다. 한국전쟁기에 제작된 영화도 마찬가지로 주제로 공산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남한 사회의 내부의 적을 색출하여 배제하면서 민중들에게는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박으로도 활용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반공영화 중 시나리오나 필름이 남아 있는 영화는 없다. 그래서 신문광고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작 과정과 줄거리를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영화는 감독에 대한 오류와 영화제목이 다른 경우가 몇 편 있었다. 또한 『정의의 진격』은 『싸우는 대한민국』(가제)으로 기획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공영화는 제작에서부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기념행사나 집회 장소 그리고 극장에서 의무 상영되었다.

반공영화는 대한민국만이 존재한 독특한 영화로 분류하듯이 반공문화 또한 대한민국에서 독특하게 존재한 문화 현상이다. 반공문화는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확고하게 자리한 문화이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 문화 생산의 당위성을 확고하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방면에 심혈을 기울였고, 문화예술인들은 시대의 부응이라면서 정부의 의도에 맞는 문화예술 창작에 나섰다. 정부의 의도에 부응하면 제작된 반공영화는 사상적 의심이 민중의 삶을 압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보아도 무방하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으로” 정부가 공증하면서, 민중은 사상적 결합 또는 무의식적인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 그렇게 상영된 영화는 반공문화를 확산시켰다. 관습과 가치와 생활양식으로 반영된 반공문화에 민중은 감격과 눈물로서 반응했다.

반공문화의 특징은 적대적이고 이분법적 논리의 배타성이다. 즉, 객관적 비판이나 논리보다는 ‘선과 악’, ‘내 편과 네 편’, ‘옳고 그름’ 등 흑백의 이념적 표현으로 노출했다. 또한, ‘빨갱이’, ‘용공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색깔론의 집단적 비이성 사회구조는 반공문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비이성적인 반공문화는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일상 생활양식의 토대로 작동하면서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반공문화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자료

『국무회의록』, 『경향신문』, 『국도신문』, 『남조선민보』, 『동광신문』, 『동아일보』, 『마산일보』, 『민주신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성일보』, 『호남신문』

### 2. 저서

김권호, 『한국전쟁영화의 반공영화로의 포획과정에 관한 연구: 1954~1969』,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김영해,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학 비평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오제도, 『공산주의 ABC』, 남광문화사, 1952.

이인규, 『1970년대 반공영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 정책적 동인에 따른 재현 방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전통과 현대, 2001.

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1949-1968』, 소명출판사, 2015.

주철희, 『예술작품을 통해 본 여순사건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Chris Jenks, *Culture*, 김윤용 옮김,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6.

Peter Burke, *What is culture history?*, 조한욱 옮김, 『문화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05.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2000.

### 3. 논문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김미현, 『한국 반공영화 서사(narrative)의 기원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 63, 한국영화학회, 2015.
- 김수남, 『한형모의 작품세계』, 『영화연구』 16, 한국영화학회, 2001.
- 김의수, 『한국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차호, 『한국 반공영화 연구: 반공이데올로기의 의미체계와 사회 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명규·김영범, 『해방후 한국의 문화변동과 집합의식』, 『광복50주년 기념 논문집』,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 배수경, 『한국영화 검열제도의 변화』,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 염찬희, 『1950년대 영화의 작동방식과 냉전문화의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29, 한국영화학회, 2006.
- 유현미, 『태백산맥과 반공이데올로기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역사와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16, 역사문제연구소, 1992.
- 정지혜, 『한국영화 의상이 대중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 민,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1999.
- 조 은, 『냉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여성과 평화』 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3.
- 조준형, 『한국 반공영화의 진화와 그 조건』, 『근대의 풍경: 소품으로 본 한국영화사』, 소도, 2001.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359&cid=40942&categoryId=33093>)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Abstract〉

## The Formation and Meaning of Anti-Communist Culture around the Korean War

- Focusing on Anti-Communist Movie

Joo, Cheol-Hee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on and the meaning of anti-communist culture which have become general lifestyle as analyzing anti-communist movie around the Korean War(1948~1953) on the basis of preceding research. Rhee's regime had various efforts to maintain and develop blind anti-communist in division system. The first effort was organizing and preparing the legal and political instrument. If exclusion method of repression and surveillance through physical laws of national institution was building 'anti-communist' system from the upper class, Rhee's regime needed a system that can reproduce anti-communist from below on an enlarged scale. In other words, it means a whole range of activities that can take effect strong anti-communist awareness even in everyday life. Cultural and arts productions including film were used properly here. Especially, anti-communist movie have exposed brutality and atrocities of communism. And they fulfilled the role of political tools to advocate superiority of anti-communist system through the real state of affairs in North Korea. Ideological black and white logic of anti-communist was reflected in the people with daily life style, then it became anti-communist culture. Anti-communist culture is operating on the basis of dominating Korea's society and is reflecting frankly contradictions of an unreasonable and absurd society.

\* Key Words: Anti-Communist Culture, Anti-Communist Movie, Yeosun Revolt, the Korean War, Rhee's Regime

·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5월 19일 · 게재결정일: 2016년 5월 23일